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17년 8월)

일	시	2017. 8. 31. 목. 오후 5시	장 소	대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김정호, 김형주, 여성구, 윤택림, 이이남, 조경선, 조숙경, 최양호(총 8명)		
	회사	이강세 사장, 정성채 상무, 김규석 경영기획국장, 박태영 편성제작국장, 김낙곤 보도국장, 조현성 기획심의부장		

■ 회의 내용

- 조현성 기획심의부장 : -오늘 시청자위원회는 14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됐다. 회의를 시작하겠다.
- 윤택림 위원장 : -위원장을 다시 맡게 된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처음 참석하게 되어 죄송하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다. 업무보고를 먼저 해달라.
- 박태영 편성제작국장 : -<호남 4사 MBC 공동기획 천년의 전라도>를 매주 목요일 저녁 방송하고 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앞두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전라도의 가치를 조명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특집 제작을 위해 제작진이 해외 취재를 다녀왔고, <아시아의 향> 제작진도 해외 촬영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다. 두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 김낙곤 보도국장 : -영화 택시운전사의 흥행으로 5.18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MBC의 보도프로그램도 수상을 연이어 하고 있다. 5.18 발표명령의 진실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그의 이름은>이 제104회 아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한 데 이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시상하는 2017 지역프로그램대상 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 5월 집중보도한 5.18발포명령자 추적 보도가 5.18연론상을 수상해 지난 21일 시상식을 가졌다. 9월부터 MBC 언론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어 정상적인 보도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의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규석 경영기획국장 : -지난 주 제5회 꿈을 실은 독서열차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리더십을 키워주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이 예정돼 있지만, 제4회 정울성동요경연대회 등 굵직한 대표 행사들을 잘 준비해 차질 없이 개최하도록 하겠다.
- 윤택림 위원장 :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 프로그램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파업으로 인한 차질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곧 정상화가 되어 다시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김정호 위원 : -열네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된 5.18 관련 기획 '다시 5.18' 뉴스가 시의

성과 충실성을 갖춘 내용이라서 인상 깊게 시청했다. 특히 군 문서가 왜 이제야 공개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여 보도하는 내용은 다른 방송사의 관련뉴스보다 이슈를 선점하고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기획보도도 광주문화방송의 기자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하고 싶다. 특히 마스터즈대회와 관광연계필요성에 대해 대회를행과 부수효과까지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다. 다만 세계수영대회를 치른 이후 레거시(legacy)와 관련하여 광주의 경우 현재 레거시에 대한 계획이나 레거시로 남길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광주대회의 레거시는 어떤 내용으로 고민해야 하는지 언급이 부족했다고 느꼈다.

- 김형주 위원 : -뉴스를 시청하고 말씀 드린다. 풍암동 아파트 화재관련 뉴스에서 단순히 사건사고 보도로 그치지 않고 아파트 지하 공간 등에 마련된 미화원들의 열악한 휴게공간의 실태와 그와 같은 열악한 시설에서 화재가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후속보도가 있어서 다른 방송사 보다 동일한 소재를 더 심층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였다.
 - 7월인지 8월인지 날짜를 특정하여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뉴스투데이 도입부에 오늘의 주요뉴스 소개 자막에 정치권을 정치권이라고 오타가 있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지적하고 싶다. 개별 뉴스에서의 자막 오타도 문제이지만 주요뉴스 소개자막의 오타는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 여성구 위원 : -7월 31일 뉴스투데이에서는 문제점 지적이 돋보였다. 광주, 전남 국정과제 19개 채택 보도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유사한 과제가 다수였다. 특히, 4차산업혁명 사업이 그렇다. 명확한 지역 명칭을 붙이도록 해야 한다.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 내용과 대 정부 접근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어야 옳다고 본다.
 - 8월 17일 뉴스투데이에서 수능평가 방법 관련해 절대평가와 상대 평가에 찬반 논란 보도는 보도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이 어려웠다. 현행 평가방법 등 무엇이 문제인지, 왜 바꾸려고 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알지 않았다.
- 이이남 위원 : -<생방송 빛날>에서 소개한 음악으로 떠나는 사계여행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을 관심 있게 시청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ACC월드뮤직페스티벌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외국 유명 밴드와 우리 밴드의 협연이 눈길을 끌었다. 요즘 뜨고 있다는 핵오밴드의 공연, 프리마켓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광주의 여름밤을 달구었고, 시민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고 전했다. 광주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 이영숙 위원 : -<천년의 전라도>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게 될 만큼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옛것을 통한 현재에서의 재해석과 앞으로를 생각하게 했다.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윤두서 등 인물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만들고 알아보게 되었다. 각기 다른 시점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서 좋았다.
 - <별칭춘>은 주말 아침에 챙겨보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지역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고민해 주고 또 그날만이라도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곳들이 함께 소개되어 참고하게 된다. 기획 되면 가뵤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멘토들과의 만남이 좀 더 연 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좀 더 멘토들과 고민하는 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생 각도 들었다.

-안전한 사회가 필요한 것 같다. 계란살충제에 대해서도 뉴스나 정규프로에서 다 루어 주어서 다양하게 알려주었는데 정부에서도 항상 일이 생기고 나서 수습하고 점검하는 것들이 사회 전반에 너무 많은 것 같다. 방송에서는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서 미리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보도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조경선 위원 : -<천년의 전라도>는 7~8분이라는 길지 않은 구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숨겨진 역사나 이야기 등을 알차게 채웠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프로그램이다. 1편 전라도의 어원(語源)부터 정치(2편), 역 사(3편), 문화(4편)까지 폭넓은 주제 선정으로, 추후 남은 구성이 궁금해지게 하는 스토리 구성이 탄탄하다. 특히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된 각계각층 인사들의 설명 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현영상이나 3D등 그래픽 효과는 시청자를 몰입 시키는데 편집의 묘를 살린 제작진의 솜씨와 노고가 느껴진다. 이중에서도, 3편 '이름없는 영웅들이 지켜낸 땅'의 '명량해전' 전쟁장면이나, 4편 '새로운 세계를 창 조하는 용기'의 '윤두서' 그림이 움직이는 효과들은 그간 좋은 내용임에 불구하고 지역 제작 여건상 아쉬웠던 품질의 한계를 넘은 듯하다. 반면, 아쉬운 부분도 존재 한다. 1편 고려시대를 설명하는 삽화가 조선시대 배경으로 나오는 부분은 옥의 티 처럼 보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면이 어두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엄중한 상황을 의미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내용에 비추 어볼 때 화면이 조금 더 밝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두 가지 '옥의 티'로 프로그램의 우수함을 폄하할 수 없을 것이고, 방영편이 늘어날수록 지 역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교보재가 될 듯하다.

- 조숙경 위원 : -<생방송 빛날>에서 야구해설위원이자 전 기아 감독인 김성한 씨를 초대 해 기아 야구경기 현황과, V11에서 우승 가능 여부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 다. 현재 70승44패1무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가 전반기에 비해 최근 성적이 부진해 진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주어 이해하기 쉬웠다. 특히 두산베어스와 경기 예측에서 는 그 이유를 꼼꼼하게 짚어주어 전문가로서 역할이 돋보였다. 그러나 기아에 대한 애정 때문이겠지만, 선수 선발진 운영에 따라 타선이 흔들리는 문제는 있으나 곧 회복될 거라는 등 지나치게 기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객관성이 떨어져 아쉬웠 다. 한편 중간에 시민 대상 인터뷰는 기아에 대한 한결같은 시민들의 애정과 기대 를 읽을 수 있어 좋았다.

- 최양호 위원 : -8월 28일 뉴스데스크를 모니터링 했다. 정용욱 기자와 백수진 아나운서 는 뉴스진행을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 두 가지 정도 시청 의견을 내자면 스타일과 관련하여 정용욱 기자의 얼굴 메이크업이 너무 하얗게 두드러지게 보인다. 둘째, 뉴스 순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뉴스 순서를 보면, 1) 도종환 문 체부 장관 도청 원형 복원 2) 계엄군 5.18 51만 총탄 발사 3) 여수 회전교차로 교 통문제 4) 저수지 차량 모녀 발견 5) 기아 타이거즈 부진 6) 49년 만에 광주은행 출신 첫 은행장 탄생 7) 박태환, 안세현 수영 8) 여성벤처기업 박람회 개막 등이었 다. 뉴스 순서는 뉴스가치 또는 중요성 그리고 주제별로 배열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오늘 뉴스에서 헤드라인 뉴스는 5.18 관련 뉴스로 출발은 좋았다. 하지만 세 번째 뉴스부터 뉴스 주제와 중요도 측면에서 보자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지 역 뉴스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를 한데 묶고, 스포츠 뉴스와 일곱 번째를 한데 묶 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조금 더 뉴스 배열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피치 가르칠 때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두 앵커도 마찬가지로 지역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뉴스의 오프닝 멘트와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면 어떨까?

- 윤택림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 고맙다. 보도와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세세하고 깊이 있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해 달라.
- 박태영 편성제작국장 : -<별칭춘> <빛날> 등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 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 PD에게 전달하고 제작 시 반 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월드뮤직페스티벌 등 지역에서 열리는 의미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성공 개최를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별칭춘>에서 멘토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부분은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지 고민하도록 하겠다.
- 김낙곤 보도국장 : -최양호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뉴스의 순서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다. 저희가 고심 끝에 뉴스를 배치하지만 보다 더 시청자의 입장에서 관심 있 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다. 여성구 위원님의 지적에 공 감하며, 시청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일선 기자들에게 전달하겠다. 김정호, 김형주 위원께서 뉴스에 대해 구체적 으로 지적해주셨는데 미처 우리가 놓친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는 더욱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 이강세 사장 : -오늘 뉴스와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장과 공유하고 답변과 처리 결과를 다시 드릴 수 있도 록 하겠다.
- 윤택림 위원장 :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그 결과 를 알려주길 바란다. 그럼 2017년 8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모두 수고하셨다. 끝.